



선지식 17

금각사 주지 만수 스님
“도 이루려면
가난 먼저 배워라”



5

영봉 스님 특별 기고
“미안마 난민촌에
자비를”



19

재계 이상시문학상수상자
이승훈 시인 선정



13

돈연 법사 선시 특강
대자유로 이끄는
깨달음의 노래



9

동방대학원대 백원기 교수
“심우장 성역화 해야”

“대통령은 사과하라 경찰청장 파면하라”

8·27 범불교도대회서 20만 불자 요구...정부 침묵

“대한민국 정부는 선교의 도구가 아니다. 헌법과 종교차별 이명박은 사과하라.”

8월 2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은 구조가 적힌 300여개의 만장(萬章)과 가사 장삼을 입은 스님 1만여명 등 20만여명의 불자들이 뒤덮었다. ‘헌법과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가 사상 최대규모로 성공리에 봉행된 것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7개 종단이 주최하고 불행위원회(상임불행위원장 원화)가 주관한 이번 범불교도대회는 낮 12시 30분부터 식전공연, 오후 2시부터 본 대회,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조계사까지 평화행진을 한 뒤 해산함으로써 마무리됐다.

정치권도 관심, 여야 탄 목소리 범불교도대회 상임불행위원장 원화 스님은 봉행사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야단법석의 법회를 갖게 된 것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종교 계층 이념간의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대회 취지를 밝혔다. 사부대중은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사과, 경찰청장등 공직자 파면과 엄중문책, 종교차별 금지 법제화, 시국 관련자에 대한 국민대화합 조치 실행 등을 요구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불교계는 종교평화를 기원하는 불자들의 단합된 힘과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 국민의 시선이 쏠린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과 실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규탄함으로써, 불교계의 대사회적 위상을 과시했다는 자부심도 드러났다. 실제로 주요 방송과 일간지는 일제

히 불교도대회를 집중 보도하며 종교편향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제도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치권도 불교계의 대규모 집회를 둘러싸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야권은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며 공세의 수위를 한층 높였고, 여권은 종교 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엔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비록 정부가 관련돼 일어난 일이지만 당 차원에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당장 법을 고쳐 불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야권은 정부가 불교계의 정당한 요구에 소극적 자세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화만 키웠으며 정부의 통렬한 반성과 행동을 일제히 촉구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지도부는 집회 현장에 직접 나섰다.

특히 “천천히 설득” 불자들 분노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종교 편향의 진원지는 이 대통령과 청와대”라며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미루고 있는 청와대가 종교편향을 시정하겠다고 하니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불자들의 준엄한 사자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경찰청장 파면, 국민대화합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불교계에 약속한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불교계를 설득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문화재 유

지보수 예산 확대, ‘10·27 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불교계 명예회복 등이 골자다.

추석 이후 권역별 규탄 대회 하지만, 이는 불교계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쇠귀에 경읽기’ 식의 대응임을 불교계는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계속될 것 이란 판단아래, 불행위원회는 8월 31일 초하루법회를 기해 ‘이명박 정부 규탄 전국사찰 동시법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대정부 항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추석이후 영남권을 시작으로 본격화 될 ‘권역별 정부규탄 범불교도대회’에 대비해 8·27대회를 준비해 온 사무처 조직을 상설팀으로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 실·부장, 국장급 스님들은 종교차별의 완전종식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종도들에 대한 참화와 반성의 의미로 집행부 총사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행위 대변인 승원 스님은 “이명박 정부가 하루 속히 종교차별에 참회하고 국민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며 “불교계 요구에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공인대로 지역별 범불교도대회와 전국승려대회 개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종교차별을 종식시키고 종교평화와 국민화합을 실현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종교 화합을 통해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로 나아가길 것인가, 종교 차별로 인한 갈등으로 사회통합과 선진화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손에 쥐어진 주사위가 어디로 던져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별취재팀 (김성우·조동섭·기연숙·노덕현 기자)



헌법과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가 8월 27일 서울광장에서 20만여명의 불자가 동참한 가운데, 사상 최대규모 성공리에 봉행됐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강영화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114 010-7535-0685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순 향산화 원력 100%”
정다향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물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원형
덕유산 정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소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관음 전용 관불수향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 만드는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범종 명가 성종사 국내 최대 1만관 캐종 주도 성공

이 사람이!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매졌어
흔들림이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관이아님 깎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워주세요!

민주의 종 8150관(원종 국내 최대)

— 국내 범종의 1만관 시대 개막 —

국내 최대종인 화천 세계평화의 종(37.5ton)이 성종사 기술진에 의해 성공리에 주도되었습니다.
오는 11월 화천 평화의 종 공원에 설치되어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물로 활용될
세계평화의 종은 성종사의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에 의해 주도된 국내 최대의 종으로
한국 범종 역사에 길이 남을 문화유산이 될 것입니다.

人間文化財 第112號 梵山 元先植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사이트 : www.sungjonga.co.kr / E-MAIL: sungjonga@hotmail.com
대 표 :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대한민국 명장)